







WP 23-15

# 도시는 과연 관용적인가: 이민자에 대한 도시-농촌 주민의 태도 비교

이소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sohyeonlee@krihs.re.kr)



































01 서론	05

- 02 분석 방법 09
- 03 분석 결과 13
- 04 결론 및 향후 과제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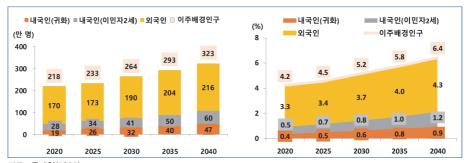




### 01 서론

- 우리나라의 민족적·인종적 다양성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이민자를 우리와 함께 살아갈 주민으로 포용하는 이민 정책(immigration policy)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관련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한숙 2021)
  - (다양성 증가) 우리나라에서 내국인 총인구는 2020년 5,184만 명에서 2040년 5,019만 명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이주 배경 인구는 2020년 218만 명(약 4.2%)에서 2040년 323만 명(약 6.4%)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통계청 2022)1)

#### 그림 1 2020~2040년 이주 배경 인구 추이



자료: 통계청(2022).

- (현행 이민 정책의 한계)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018~2022)〉은 외국인 관광객, 해외 숙련 인력, 유학생, 외국인 투자 유치에 중점을 두고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어 이민 자의 정주를 위한 계획이라 보기엔 한계가 있음(이한숙 2021)
  -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되는 범정부 차원의 국가계획으로, 이민 정책에 관한 정책지침서이자 향후 5년간의 정책 추진에 관한 기본설계도라고 볼 수 있음(법무부 2018)

<sup>1)</sup> 이주 배경 인구는 본인이나 부모 중 한 명이 출생 당시 또는 현재 시점에서 외국 국적인 시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귀화자(내국인), 이민자 2세대(내국인), 외국인을 합산하여 산출함(통계청 2022).

- 지방소멸의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개방적인 이민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정부와 지자체가 이민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 마련에 힘쓰고 있지만, 이민자 수용에 대한 국민의정서는 여전히 배타적(윤인진, 송영호 2011; 정동재 2023)
  - (이민자 수용성 유지)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이민자·노동자를 사회구성 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2013년 약 9.8%에서 2022년 약 10.0%로, 국내 거주 외국인을 신뢰할 수 없다는 비율은 2013년 약 86.1%에서 2022년 약 86.6%로 유지되고 있음

#### 그림 2 이민자 수용에 대한 국민 정서



자료: 한국행정연구원의 각 연도(2013~2022년) 사회통합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함.

- (현행 사회통합 정책의 한계) 정부의 외국인 사회통합 및 문화다양성 제고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민자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여전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표출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음(법무부 2018)
- 국내 이민자의 정주 환경은 도시와 농촌에 따라 매우 다르지만, 현행 이민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로 수립되고 지자체는 단순히 이를 집행하는 기능만 수행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최병두, 김영경 2011)
  - (지역별 이민자 정주 환경) 도시 지역 이민자는 지역 주민과 동화되지 않고 이민자 밀집 거주지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반면에 결혼이민자가 주류인 농촌 지역 이민자는 지역 주민 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음(임형백 2009)
  - (지역 기반 이민 정책 필요성) 향후 우리나라의 이민 정책은 이민자가 정착하여 생활하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네트워크화된 거버넌스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최병두, 김영경 2011)

- 이민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개인적 특성 외에 거주하는 지역의 환경적 특성 도 포함되며, 특히 도시와 농촌 주민의 이민자 포용성이 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내에 서는 관련 연구가 부족함
  - (관용적이고 진보적인 도시) 도시 주민은 농촌 주민보다 성적 권리, 가족 가치, 이민에 대해 더 관용적이고 진보적인 가치관을 가지며, 이민자 유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짐(Brownstein 2016; Luca, Terrero-Davila, Stein and Lee 2023)
    - 평균적으로 농촌보다 '타인'과의 상호 작용이 더 많은 도시에서 더 큰 관용이 촉진될 수 있음(Luca, Terrero-Davila, Stein and Lee 2023)
    - 도시-농촌 이동은 선택적이며.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이민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대도시로 몰려드는 경향이 있음(Maxwell 2019)
  - (국내 연구의 한계) 국내에서는 농촌이 도시보다 이민자에게 더욱 관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도시와 농촌 주민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를 직접 분석한 연구는 없는 상황
    - 외국인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이민자가 증가하는 현상을 위협으로 인식하여 외국인 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민지선, 김두섭 2013)
    - 영남 지역은 보수적 가치를 지향하여 이민자 수용성이 낮고, 호남 지역은 이민자를 위협으로 받아들여 이민자 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황성식, 김두섭 2020)
- 이민자에 대한 인식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가 서로 다름을 밝히고, 차별화된 정책적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음
    -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 간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에는 차이가 있는가?
    - 도시와 농촌 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하더라도 이민자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가?
    - 도시와 농촌 주민 간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이민자로 인한 변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가?

# 02 분석 방법

#### 1) 분석 자료 및 대상

- (분석 자료) 2021년 「국민 다문화<del>수용</del>성 조사」
  - 3년 주기로 실시되므로 해당 자료가 2023년 기준 최신 자료임
- (분석 대상)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개인
  -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의 조사 대상은 만 19~74세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 적으로 차별된 양상을 나타내는 노년층을 제외하기 위해 연령을 만 19~64세로 제한함

#### 표 1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개요

구분	내용
조사 목적	일반 국민의 다문화 수용 정도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작성 기관	여성가족부(위탁연구 수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법적 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승인번호: 154019, 승인일자: 2015. 8. 27.)
조사 대상	전국 만 19~74세 5,000명
공표 주기	3년
자료 수집	전문 면접원의 가구 방문을 통한 면접조사
표본 설계	층화 추출(기준: 21개 시·도, 동부/읍·면부, 주택 유형)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통계설명자료서비스.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https://www.narastat.kr/metasvc/index.d o?orgld=154&confmNo=154019&kosisYn=Y, 2023년 11월 22일 검색)와 여성가족부(202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함.

#### 2) 분석 기법

- (독립 표본 t- 검정) 도시와 농촌 주민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함
  - 두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검증하는 기법으로, 귀무가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기각되는 경우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함
- (회귀분석) 도시 여부가 이민자에 대한 태도(특히,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살펴보기 위해 사용함

#### 3) 도시와 농촌의 구분

- 도시 지역(urban area)과 농촌 지역(rural area)을 구분할 때 논의되는 주요 기준으로는 해당 지역의 인구 규모(인구 및 가구 수), 인구의 질적 특성(인구밀도, 직업 등), 경제적 특성(경관, 토지이용 등), 사회적 특성(생활구조, 인간관계 등)이 있음(강대구 2009)
- 국내에서는 통상적으로 통계 조사나 분석의 편의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동지역을 도시 지역으로, 읍·면 지역을 농촌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음(염지혜 2016)2)
- 이에 본 연구에서도 동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도시 주민으로,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농촌 주민으로 분류하고자 함
-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결측치를 제외한 최종 표본은 4,360명이며, 이 중 도시 주민은 3,671명(약 84.2%), 농촌 주민은 689명(약 15.8%)임3)

#### 4) 이민자에 대한 태도

- 이민자에 대한 태도는 다문화 가치를 수용하는 정도, 이민자와 관계를 맺는 태도, 이민자로 인한 변화에 대한 주관적 판단 등에 관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 다문화 수용성이란 자신과 다른 구성원이나 문화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고, 자신의 문화와 동등 하다고 상호 인정하며,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협력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의미함(민무숙, 안 상수, 김이선, 김금미 외 2010)
  - 다문화 가치를 수용하는 정도는 안상수, 민무숙, 김이선, 이명진 외(2012)가 개발한 다문화 수용성 지수(Korean Multi-Culturalism Inventory: KMCI, 이하 KMCI)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음
  - KMCI는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의 3가지 차원으로 구분되고, 각 차원에는 총 8개의 하위 요소가 있으며, 각 요소는 3~7개의 측정 문항(6점 척도)으로 구성됨(여성가족부 2022)
    - (다양성 차원) 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
    - (관계성 차원) 일방적 동화 기대, 거부 및 회피 정서, 상호교류 행동의지
    - (보편성 차원) 이중적 평가, 세계시민 행동의지
  - (측정)본 연구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한 KMCI 지수를 10점 척도로 환산하여 이용함

<sup>2) 「</sup>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르면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둘 수 있음.

<sup>3)</sup> 표준화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임.

- (해석)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가치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 이민자와 관계를 맺는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이민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은 여부와 이민자가 직장 동료나 상사. 친구 등 지인이 되는 것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조사함
  - 본 연구는 이민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은지 여부를 사회 내 다른 소수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봄
    - 외국인 노동자·이민자, 국제 난민으로 입국한 사람, 다른 인종인 사람, 마약 상습 복용 자, 에이즈 환자, 동성애자
  - 본 연구는 5가지 문항으로 구성되는 이민자 관계 형성에 대한 감정을 10점 척도(0: 전혀 불편하지 않음 ~ 10: 매우 불편함)로 환산하여 이용함
    - 이민자가 나의 직장 동료가 되는 것, 이민자가 나의 직장 상사가 되는 것, 이민자가 나의 친구가 되는 것, 나의 자녀와 다문화 학생이 같은 반이 되는 것, 나의 자녀와 다문화 학생 이 친구가 되는 것
- 이민자로 인한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민자 증가에 따른 동네 및 국가의 변화에 대한 의견을 조사함
  - (측정) 본 연구는 각각 4가지 문항으로 구성되는 이민자로 인한 동네의 부정적 변화에 대한 의견과 이민자로 인한 국가적 변화에 대한 의견을 10점 척도로 환산하여 이용함
  - (해석) 점수가 높을수록 이민자로 인한 변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표 2 다문화 수용성의 측정

구분	의미	문항 수 (개)	총점 (점)	가중치
다문화 수용성(종합)	• 다문화 가치를 수용하는 정도	35	210	100
[1] 다양성(소계)	• 자신과 다른 문화를 동등하게 상호 인정하는 정도	15	90	39
1-1 문화개방성	<ul><li>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정도</li><li>문화개방성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경향이 있음</li></ul>	4	24	12
1-2 국민정체성	<ul> <li>국민의 기준이 무엇이고, 누구를 국민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국가 구성원의 인식</li> <li>국민정체성이 약할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경향이 있음</li> </ul>	4	24	13
1-3 고정관념 및 차별	<ul> <li>인종, 민족, 지역 범주에 대한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선입견이나 부정적인 지식</li> <li>부정적 고정관념 및 차별이 약할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경향이 있음</li> </ul>	7	42	14

#### 표 2 다문화 수용성의 측정 (계속)

구분	의미	문항 수 (개)	총점 (점)	가중치
[2] 관계성(소계)	• 이민자 집단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의 정도	11	66	38
2-1 일방적 동화 기대	이민자가 자신의 문화적 가치나 정체성을 버리고 일방 적으로 주류 문화에 순응해야 한다고 믿는 신념의 정도     일방적 동화 기대가 약할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경향이 있음	4	24	12
2-2 거부 및 회피 정서	<ul> <li>자신과 다른 문화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비합리적으로 표현하는 정도</li> <li>거부 및 회피 정서가 약할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경향이 있음</li> </ul>	3	18	14
2-3 상호교류 행동의지	이민자와 상생적이고 활발한 교류 관계를 구축하고 실 천하려는 의지     상호교류 행동의지가 강할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경향이 있음	4	24	12
[3] 보편성(소계)	• 세계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보편적 태도와 신념의 정도	9	54	23
3-1 이중적 평가	<ul> <li>문화적 가치나 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등급을 매겨 이중 적으로 대하는 정도</li> <li>이중적 평가가 약할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경향이 있음</li> </ul>	4	24	12
3-2 세계시민 행동의지	<ul> <li>국경을 초월한 세계의 일원으로서 빈곤, 기아, 인권 등 지구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 천하려는 의지</li> <li>세계시민 행동의지가 강할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경향이 있음</li> </ul>	5	30	11

주: 모든 지표는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도록 변환됨. 자료: 여성가족부(202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함.

### 5) 기타 통제 변수

• 본 연구에서는 성별, 나이, 혼인 상태, 소득, 학력, 해외 경험 여부, 주관적 생활 만족감을 통제 변수로 이용함

#### 표 3 통제 변수의 측정

변수	측정
성별	• 남성 여부(1: 남성, 0: 여성)
나이	• 만 나이(단위: 세)
혼인 상태	• 기혼 여부(1: 기혼, O: 기혼을 제외한 기타 혼인 상태)
소득	• 월평균 가구 소득(단위: 만원)의 로그 환산값
학력	• 정규 교육을 받은 기간(단위: 년)
해외 경험 여부	• 해외여행 및 거주 경험 여부(1: 있음, 0: 없음)
주관적 생활 만족감	• 주관적으로 느끼는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10점 척도로 환산 •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감이 높은 것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함.

## 03 분석 결과

#### 1) 도시와 농촌 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 비교

- 우리나라에서 도시와 농촌 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성별, 나이, 결혼상태, 소득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관적으로 느끼는 생활에 대한 만족감은 서로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평균적으로 도시 주민은 농촌 주민보다 젊고, 남성이 적고, 기혼자도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 도시(약 50.4%)와 농촌(약 56.8%)의 평균 남성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
    - (결혼상태) 도시(약 67.4%)와 농촌(약 78.1%)의 평균 기혼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
    - (나이) 도시(약 43세)와 농촌(약 45세)의 평균 나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
  - 평균적으로 도시 주민은 농촌 주민보다 해외여행 및 거주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해외 경험) 도시(약 57.2%)와 농촌(약 38.8%)의 평균 해외 경험률은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나타냄
  - 평균적으로 도시 주민은 농촌 주민보다 교육 수준이 높고, 소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소득) 월평균 가구 소득의 로그 환산값으로 측정한 소득 수준은 도시 주민이 농촌 주민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학력) 도시(약 14년)와 농촌(약 13년)의 평균 정규 교육 기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
  - 평균적으로 도시와 농촌 주민의 주관적 생활 만족감은 서로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도시 주민의 주관적 생활 만족감(0: 매우 불만족~10: 매우 만족)은 약 6.2점이고, 농촌의 경우 약 6.3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표 4 도시와 농촌 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

부문	도시 (N=3,671)			촌 689)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 동일성에 대한 T 검정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F	t
남성 여부	50.41%	_	56.81%	_	67.55***	<sup>†</sup> -3.11***
기혼 여부	67.43%	_	78.10%	_	176.75***	<sup>†</sup> -6.08***
해외 경험 여부	57.23%	-	38.78%	_	20.35***	†9.09***
나이	42.78	12.98	44.43	12.29	12.53***	<sup>†</sup> -3.20***
소득	6.05	0.42	5.86	0.47	4.84**	<sup>†</sup> 9.55***
학력	13.60	1.95	12.88	2.10	0.05	8.77***
주관적 생활 만족감	6.17	1.80	6.29	1.85	0.49	-1.55

주: 1) 표준화 가중치를 적용함. 2)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는 T 검정을 수행함. 3) \*\*\*p<0.001, \*\*p<0.05. 자료: 여성가족부(202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함.

■ (소결) 도시와 농촌 주민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집단 간 사회경제적 차이 를 통제할 필요가 있음

#### 2) 도시와 농촌 주민의 이민자 관계 형성에 대한 태도 비교

-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 중독자, 에이즈 환자, 동성애자에 비해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약한 편이지만, 평균적으로 농촌보다 도시에서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하는 경향이 더 강하고, 특히 난민 입국자를 배제하는 태도에서 큰 차이를 나타냄
  - 도시와 농촌 모두에서 마약 상습 복용자, 에이즈 환자, 동성애자를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외국인(외국인 노동자·이민자, 국제 난민 입국자, 다른 인종)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현저히 높음
  - 도시와 농촌 모두에서 국제 난민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외국 인 노동자·이민자 또는 다른 인종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도시)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은 비율은 국제 난민 입국자(약 48.6%), 외국인 노동자·이 민자(약 29.0%), 다른 인종(약 26.7%)의 순서로 높음
    - (농촌)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은 비율은 국제 난민 입국자(약 43.7%), 다른 인종(약 29.6%), 외국인 노동자·이민자(약 26.4%)의 순서로 높음
  - 전반적으로 사회적 소수 집단을 이웃으로 두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은 도시 여부와 관련이 없었으나, 국제 난민 입국자나 에이즈 환자에 대한 의견에는 도시와 농촌 간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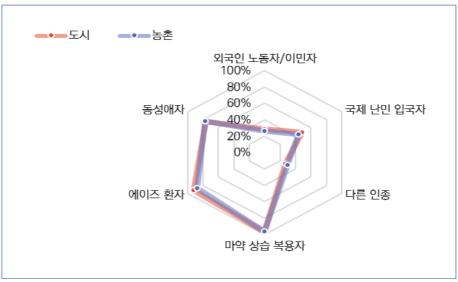
- (국제 난민 입국자) 도시(약 48.6%)와 농촌(약 43.7%)에서 국제 난민 입국자의 이웃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평균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
- (에이즈 환자) 도시(약 91.7%)와 농촌(약 87.2%)에서 에이즈 환자의 이웃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평균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

#### 표 5 도시와 농촌 주민의 특정 집단을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은 비율 비교

부문		도시 (N=3,671)	농촌 (N=689)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 동일성에 대한 T 검정
		평균	평균	F	t
	외국인 노동자·이민자	29.00%	26.40%	8.32***	<sup>†</sup> 1.41
외국인	국제 난민 입국자	48.64%	43.70%	42.94***	<sup>†</sup> 2.39***
	다른 인종		29.56%	8.68***	<sup>+</sup> -1.51
	l약 상습 복용자	96.73%	96.01%	3.65	0.96
에이즈 환자		91.74%	87.23%	54.21***	<sup>†</sup> 3.34***
	동성애자	75.78%	77.45%	3.69	-0.94

주: 1) 표준화 가중치를 적용함. 2)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는 T 검정을 수행함. 3) \*\*\*p(0.001, \*\*p(0.05. 자료: 여성가족부(202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함.

#### 그림 3 도시와 농촌 주민의 특정 집단을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은 비율 비교



자료: 여성가족부(202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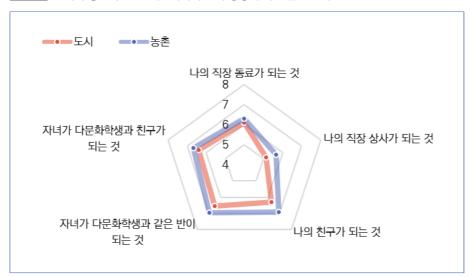
- 우리나라 국민은 일반적으로 이민자와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도시 주민은 농촌 주민보다 더 큰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이민자와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대한 불편함을 측정하는 변수들(0: 전혀 불편하지 않음 ~10: 매우 불편함)은 모두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직장 동료로서의 관계) 이민자와 직장 동료로 지내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평균 수준은 도시(약 3.9점)와 농촌(약 3.7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 (직장 상사로서의 관계) 이민자를 직장 상사로 모시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는 평균 수준은 도시(약 4.9점)와 농촌(약 4.3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 (친구로서의 관계) 이민자와 친구로 지내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평균 수준은 도시(약 3.7점)와 농촌(약 3.1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 (자녀와 다문화 학생의 학급 동료 관계) 자녀가 다문화 학생과 같은 반이 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평균 수준은 도시(약 3.5점)와 농촌(약 3.0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 (자녀와 다문화 학생의 친구 관계) 자녀가 다문화 학생과 친구로 지내는 것에 대해 불편 함을 느끼는 평균 수준은 도시(약 3.6점)와 농촌(약 3.3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 도시와 농촌 주민은 자녀가 다문화 학생과 맺는 관계보다 자신과 이민자가 맺는 관계를 더욱 불편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남
    - 이민자가 나와 맺는 관계에 대한 평균 불편감은 자녀가 다문화 학생과 맺는 관계에 대한 평균 불편감보다 높음
  - 도시와 농촌 주민은 이민자를 직장 상사로 모시는 것을 가장 불편해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직장 동료가 되는 것을 불편해하며, 이민자와 친구로 지내는 것은 상대적으로 덜 불편해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신과 이민자의 관계에 대한 평균 불편감은 직장 상사, 직장 동료, 친구 순으로 낮음

표 6 도시와 농촌 주민의 이민자와의 관계 형성에 대한 불편감 비교

부문		시 ,671)	농촌 (N=689)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 동일성에 대한 T 검정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F	t
이민자 관계 형성(평균)	3.91	1.77	3.49	1.73	0.001	5.67***
• 나의 직장 동료가 되는 것	3.88	1.95	3.69	1.91	4.31**	<sup>†</sup> 2.30**
• 나의 직장 상사가 되는 것	4.85	2.50	4.34	2.42	10.04***	<sup>†</sup> 5.08***
• 나의 친구가 되는 것	3.72	2.23	3.08	2.15	4.98**	<sup>†</sup> 7.11***
• 자녀가 다문화학생과 같은 반이 되는 것	3.47	2.19	3.03	2.06	0.05	4.89***
• 자녀가 다문화학생과 친구가 되는 것	3.62	2.19	3.31	2.13	5.19**	†3.42***

주: 1) 표준화 가중치를 적용함. 2)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는 T 검정을 수행함. 3) \*\*\*p(0.001, \*\*p(0.05. 자료: 여성가족부(202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함.

#### 그림 4 도시와 농촌 주민 간 이민자와의 관계 형성에 대한 불편감 비교



자료: 여성가족부(202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함.

■ (소결) 우리나라의 경우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는 마약 중독자, 에이즈 환자, 동성애자에 비해 약한 편이나, 도시 주민은 농촌 주민에 비해 이민자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더 불편 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3) 도시와 농촌 주민의 다문화 수용성 비교

- 기술통계량을 살펴본 결과, 도시 주민은 일반적으로 농촌 주민보다 다문화 가치를 받아들이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민자와의 긴밀한 관계를 맺으려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남
  - (다문화수용성종합) 평균적으로 도시 주민은 농촌 주민보다 다문화 가치에 대한 수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부문별 순위도 도시와 농촌 주민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도시 주민(평균 5.25점)의 다문화 수용성은 농촌(평균 5.36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음
    - (도시) 다문화 수용성을 구성하는 세부 부문은 다양성(약 5.42점), 보편성(약 5.17점), 관계성(약 5.12점)의 순서로 높은 수용성을 나타냄
    - (농촌) 다문화 수용성을 구성하는 세부 부문은 다양성(약 5.48점), 관계성(약 5.32점), 보편성(약 5.20점)의 순서로 높은 수용성을 나타냄
  - 도시와 농촌 주민 간 다른 문화를 상호 인정하는 정도(다양성)와 다양한 문화를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보편성)는 서로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이민자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려는 의지(관계성)는 농촌 주민이 도시 주민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남
    - 도시와 농촌 주민의 다양성과 보편성에 대한 수용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관계성에 대한 수용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양성 차원) 도시와 농촌 주민이 가지는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 및 차별은 서로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문화개방성은 농촌 주민이 도시 주민보다 더 높고, 국민정체성 의 식은 도시 주민이 농촌 주민보다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남
    - 도시와 농촌 주민의 다문화에 대한 고정관념 및 차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문화개방성과 국민정체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관계성 차원) 도시 주민은 농촌 주민보다 이민자에게 일방적인 순응을 기대하는 경향이 강하고, 거부 및 회피하는 정서가 강하며, 상호교류하려는 의지가 약한 것으로 나타남
    - 세 가지 세부 지표(일방적 동화 기대, 거부 및 회피 정서, 상호교류 행동의지) 모두에서 도시와 농촌 주민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편성 차원) 도시와 농촌 주민이 가지는 이민자에 대한 이중적 평가는 서로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세계시민으로서 행동하려는 의지는 도시 주민보다 농촌 주민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남
    - (보편성 차원) 도시와 농촌 주민의 세계시민 행동의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이중적 평가는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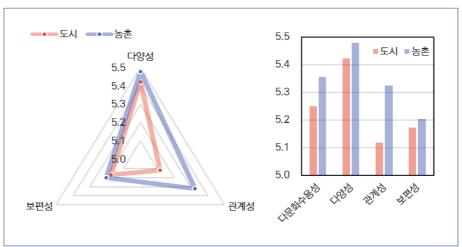
#### 표 7 도시와 농촌 주민의 다문화 수용성 비교

부문	도시 (N=3,671)		농촌 (N=689)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 동일성에 대한 T 검정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F	t	
다문화 수용성(종합)	5.25	0.99	5.36	1.08	9.91***	<sup>†</sup> -2.41***	
[1] 다양성(소계)	5.42	1.21	5.48	1.27	0.09	-1.12	
1-1 문화개방성	4.83	1.53	4.94	1.40	15.07***	<sup>†</sup> -1.86**	
1-2 국민정체성▼	4.95	1.67	5.08	1.82	6.51**	<sup>†</sup> -1.85**	
1-3 고정관념 및 차별▼	6.37	1.58	6.30	1.76	12.82***	<sup>†</sup> 0.90	
[2] 관계성(소계)	5.12	1.22	5.32	1.32	10.95***	<sup>†</sup> -3.82***	
2-1 일방적 동화 기대▼	4.87	1.53	4.98	1.69	13.59***	<sup>†</sup> -1.50	
2-2 거부 및 회피 정서▼	6.36	1.87	6.58	2.11	31.88***	<sup>†</sup> -2.53***	
2-3 상호교류 행동의지	3.92	1.86	4.21	2.03	10.58***	<sup>+</sup> -3.55***	
[3] 보편성(소계)	5.17	1.08	5.20	1.19	5.64**	<sup>+</sup> -0.61	
3-1 이중적 평가▼	4.90	1.64	4.86	1.74	3.73	0.70	
3-2 세계시민 행동의지	5.47	1.39	5.58	1.53	8.72***	<sup>†</sup> -1.82**	

주: 1) 표준화 가중치를 적용함. 2) ▼는 역코딩 부문을 나타냄. 3)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는 T 검정을 수행함. 4) \*\*\*p<0.001, \*\*p<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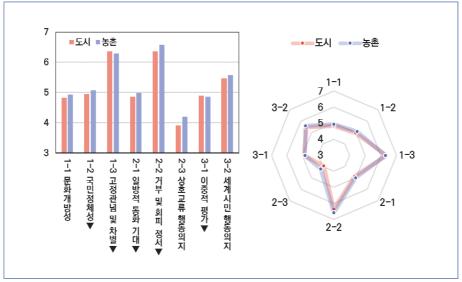
자료: 여성가족부(202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함.

#### 그림 5 도시와 농촌 주민의 다문화 수용성 비교



자료: 여성가족부(202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함.

#### 그림 6 도시와 농촌 주민의 다문화 수용성 세부 지표별 비교



주: ▼는 역코딩 부문을 나타냄.

자료: 여성가족부(202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함.

-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도시와 농촌 주민 간 사회경제적 차이를 통제하더라도 도시 주민은 농촌 주민보다 다문화 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개인의 다문화 수용성은 도시 여부 단독보다는 사회경제적 조건의 추가적인 통제로 더욱 잘 설명되지만, 이 역시 다문화 수용성의 약 3.4%만을 설명하므로 설명력이 다소 낮음
    - 모형 3(R<sup>2</sup>=0.031)은 모형 1(R<sup>2</sup>=0.002)보다 설명력이 더 좋음
  - 도시 주민은 농촌 주민보다 다문화 수용성이 낮으며, 개인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통제하는 경우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남
    - 도시 여부 변수는 모형 1과 모형 3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으로 추정됨
    - 도시 여부 변수의 표준화 계수 값은 모형 1(-0.039)보다 모형 3(-0.051)에서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남
  - (통제 변수의 해석) 다문화 수용성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고, 기혼자가 아닌 경우 높고, 젊을수록 높고, 소득이 적을수록 높고, 고학력일수록 높고, 해외 경험이 있는 경우 높고, 주관적인 생활 만족감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도시 주민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도시 주민이 농촌 주민과 다르게 가지고 있는 차별적 특성을 새롭게 찾아낼 필요가 있음

#### 표 8 회귀분석 결과(다문화 수용성과 도시 여부)

	5	모형 1		<u>l</u> 형 2	모형 3			
변수	수 비표준화   계수 t	t	비표준화 계수	t	비표준화 계수	t	표준화 계수	
도시 여부	-0.107	-2.573**	_	-	-0.141	-3.337***	-0.051	
남성 여부	_	_	0.085	2.820***	0.079	2.602***	0.039	
나이	_	-	-0.004	-2.378**	-0.004	-2.187**	-0.049	
기혼 여부	_	-	-0.108	-2.401**	-0.123	-2.723***	-0.057	
소득	_	-	-0.159	-4.406***	-0.143	-3.949***	-0.061	
학력	_	_	0.041	4.715***	0.043	4.985***	0.086	
해외 경험 여부	_	-	0.083	2.694***	0.095	3.069***	0.047	
주관적 생활 만족감	_	-	0.028	3.296***	0.026	3.137***	0.048	
상수	5.357	140.190***	5.660	22.901***	5.654	22.903***	-	
모형 검정				결과				
R <sup>2</sup> (수정된 R <sup>2</sup> )	0.00	2(0.001)	(0.001) 0.031(0.030) 0.034(0.032)			2)		
ANOVA 검정(F)	6.0	612**	20.088***			19.010***		
VIF의 최댓값	1	.000	2	.231		2.238		

주: 1) 표본 수(N)=4,360. 2) 표준화 가중치를 적용함. 3) \*\*\*p(0.001, \*\*p(0.05. 자료: 여성가족부(202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함.

- 다문화 수용성의 세부 차원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도시와 농촌 주민은 다문화 수용성의 다양성이나 보편성 차원에서 서로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나, 관계성 차원에서는 도시 주민이 농촌 주민보다 낮은 수용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도시 여부와 사회경제적 통제 변수는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성 차원을 가장 잘 설명하고,
     다음으로는 다양성 차원을 잘 설명하며, 보편성 차원은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모형의 설명력은 관계성( $R^2$ =0.030), 다양성( $R^2$ =0.028), 보편성( $R^2$ =0.020)의 순서로 큰 것으로 나타남
  - 개인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통제한 상황에서 도시 주민은 농촌 주민보다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성 차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양성 차원과 보편성 차원 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도시 여부 변수는 관계성 모형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효과로 추정됨
  - (통제 변수) 다문화 수용성의 세 가지 차원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소득, 학력, 주관적 생활 만족감인 것으로 나타남

#### 표 9 회귀분석 결과(다문화 수용성의 세부 차원과 도시 여부)

변수	다양성		관기	 계성	보편성		
	비표준화 계수	t	비표준화 계수	t	비표준화 계수	t	
도시 여부	-0.094	-1.835	-0.222	-4.254***	-0.087	-1.868	
남성 여부	0.083	2.259**	0.128	3.437***	-0.010	-0.310	
나이	-0.006	-2.733***	-0.005	-2.483**	0.002	1.069	
기혼 여부	-0.159	-2.884***	-0.085	-1.518	-0.127	-2.539**	
소득	-0.082	-1.868	-0.223	-4.991***	-0.114	-2.858***	
학력	0.035	3.296***	0.045	4.214***	0.055	5.705***	
해외 경험 여부	0.060	1.597	0.089	2.338**	0.164	4.791***	
주관적 생활 만족감	0.037	3.660***	0.020	1.970**	0.018	1.884	
상수	5.586	18.608***	6.115	20.104***	5.006	18.363***	
모형 검정	결과						
R <sup>2</sup> (수정된 R <sup>2</sup> )	0.028(	0.026)	0.0300	(0.028)	0.020(0.018)		
ANOVA 검정(F)	15.42	21***	16.63	32***	11.069***		

주: 1) 표본 수(N)=4,360. 2) 표준화 가중치를 적용함. 2) \*\*\*p<0.001, \*\*p<0.05.

자료: 여성가족부(202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함.

■ (소결) 도시와 농촌 주민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통제하더라도 도시 주민의 다문화 수용성은 농촌 주민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관계성 차원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4) 다문화 수용성, 도시 여부, 이민자 변화 인식의 관계

- 기술통계량을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도시 주민은 농촌 주민보다 이민자로 인한 동네의 변화나 국가적 변화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이민자로 인한 동네 변화) 도시 주민은 농촌 주민보다 이민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신의 동네가 부정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예상할 가능성이 더 높음
    - 도시 주민(평균 4.9점)의 동네 변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농촌(평균 4.8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음
    - 도시와 농촌 주민의 '동네에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인식과 '동네의 장사 가 잘된다'라는 인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 도시와 농촌 주민의 '동네가 지저분해진다'라는 인식과 '동네가 시끄러워진다'라는 인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

- (이민자로 인한 국가적 변화) 도시 주민은 농촌 주민보다 이민자로 인한 국가적 변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도시 주민(평균 5.3점)의 동네 변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농촌(평균 4.9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음
  - 이민자로 인한 국가적인 부정적 변화 인식을 구성하는 4개 지표는 도시와 농촌 주민 간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표 10 도시와 농촌 주민의 이민자로 인한 부정적 변화 인식 비교

	도시		농촌		Levene의	평균 동일성에
부문		(N=3,671)		689)	등분산 검정	대한 T 검정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F	t
이민자로 인한 동네 변화(평균)	4.94	1.23	4.80	1.32	4.79**	<sup>†</sup> 2.50***
• 동네가 지저분해진다	4.52	2.39	4.22	2.35	0.18	3.04***
• 동네가 시끄러워진다		2.53	4.52	2.62	7.34***	<sup>†</sup> 3.96***
• 동네에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4.93	2.33	5.03	2.55	10.24***	<sup>†</sup> -0.90
• 동네에서 장사가 잘된다▼	5.34	2.05	5.43	2.34	24.24***	<sup>†</sup> -0.96
이민자로 인한 국가적 변화(평균)	5.33	1.73	4.90	1.99	19.55***	<sup>†</sup> 5.22***
•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긴다	4.90	2.27	4.50	2.40	13.12***	<sup>†</sup> 4.07***
• 한국 경제에 이바지하기보다 가져가는 것 이 더 많다	5.06	2.15	4.65	2.48	50.49***	<sup>†</sup> 4.10***
• 범죄율이 올라간다	5.53	2.25	5.08	2.44	0.31	4.72***
• 국가재정 부담이 커진다		2.16	5.38	2.39	1.35	4.72***

주: 1) 표준화 가중치를 적용함. 2) ▼는 역코딩 부문을 나타냄. 3)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는 T 검정을 수행함. 3) \*\*\*p<0.001, \*\*p<0.05.

자료: 여성가족부(202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함.

-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사회경제적 조건이 통제된 상황에서 개인의 다문화 수용성은 도시 여부보다는 이민자로 인한 변화 인식으로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문화 수용성을 도시 여부와 사회경제적 변수로 설명할 때 모형(〈표 8〉의 모형 3)의 설명 력은 약 3%에 불과했으나, 이민자 변화 인식을 추가하면 약 24%로 크게 향상됨
    - 모형의 설명력은 모형  $3(R^2=0.034)$ 보다 모형  $6(R^2=0.243)$ 에서 큰 것으로 나타남
  - 도시 여부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는 도시와 농촌 주민 간 이민자로 인한 국가적 변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개인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통제한 상황에서 이민자 동네 변화 변수를 추가(모형 4)하거나 이민자 국가적 변화 변수를 추가(모형 5)하더라도 도시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음(-)의 효과로 추정됨

- 그러나 두 변수를 모두 추가한 모형 6에서는 도시와 농촌 주민 간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즉, 개인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도시 여부를 통제할 때 이민자로 인한 동네의 변화나 국가 적 변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민자 변화 인식 변수들은 다른 변수보다 다문화 수용성을 더욱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 나 다문화 수용성을 설명하는 핵심 변수일 가능성이 높음
  - 최종 모형(모형 6)에서 표준화 계수 값은 이민자 국가적 변화(-0.332), 이민자 동네 변화(-0.244), 기혼 여부(-0.082), 학력(0.072) 등의 순서로 큰 값으로 추정됨

#### 표 11 회귀분석 결과(다문화 수용성, 도시 여부, 이민자 변화 인식)

변수	모형 4		5	<u> </u>	모형 6				
	비표준화 계수	t	비표준화 계수	t	비표준화 계수	t	표준화 계수		
도시 여부	-0.099	-2.474**	-0.069	-1.786	-0.051	-1.356	-0.018		
이민자 동네 변화	-0.273	-23.774***	_		-0.197	-17.523***	-0.244		
이민자 국가적 변화	_	<b>-</b> .	-0.226	-28.945***	-0.187	-23.776***	-0.332		
남성 여부	0.071	2.495**	-0.001	-0.019	0.008	0.282	0.004		
나이	-0.001	-0.657	-0.002	-1.189	0.000	-0.164	-0.003		
기혼 여부	-0.151	-3.543***	-0.164	-3.955***	-0.177	-4.415***	-0.082		
소득	-0.132	-3.869***	-0.072	-2.165**	-0.076	-2.370**	-0.033		
학력	0.037	4.572***	0.040	5.014***	0.036	4.706***	0.072		
해외 경험 여부	0.070	2.411**	0.127	4.490***	0.104	3.785***	0.052		
주관적 생활 만족감	0.006	0.769	0.017	2.193**	0.004	0.520	0.007		
상수	7.018	29.333***	6.428	28.235***	7.280	32.306***	_		
모형 검정	결과								
R <sup>2</sup> (수정된 R <sup>2</sup> )	0.14!	5(0.143)	0.190(0.188)		0.243(0.241)				
ANOVA 검정(F)	81.	888***	113.240***		139.789***				
VIF의 최댓값	2	.249	2.242		2.250				
T. 1) TH A(A) 4 200 0) TATE TATE TOTAL 0) *** /0.001 ** /0.00									

주: 1) 표본 수(N)=4,360. 2) 표준화 가중치를 적용함. 2) \*\*\*p<0.001, \*\*p<0.05. 자료: 여성가족부(202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함.

■ (소결) 사회경제적 여건을 통제한 상황에서 나타난 도시와 농촌 주민의 다문화 수용성 차이는 이민자로 인한 동네의 변화나 국가적 변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04 결론 및 향후 과제

#### ■ 결과 요약

- 우리나라에서는 이민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역별로 차별화된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는 마약 중독자, 에이즈 환자, 동성애자에 비해 약한 편이나, 도시 주민은 농촌 주민보다 이민자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더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 중독자, 에이즈 환자, 동성애자보다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약한 편이지만, 평균적으로 농촌보다 도시에서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하는 경향이 더 강 하고, 특히 난민 입국자를 배제하는 태도에서 큰 차이가 나타남
  - 우리나라 국민은 일반적으로 이민자와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도시 주민은 농촌 주민보다 더 큰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도시와 농촌 주민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통제하더라도 도시 주민의 다문화 수용성은 농촌 주민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관계성 차원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술통계량을 살펴본 결과, 도시 주민은 일반적으로 농촌 주민보다 다문화 가치를 받아들이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민자와의 긴밀한 관계를 맺으려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남
  -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도시와 농촌 주민 간 사회경제적 차이를 통제하더라도 도시 주민은 농촌 주민보다 다문화 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다문화 수용성의 세부 차원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도시와 농촌 주민은 다문화 수용성의 다양성이나 보편성 차원에서 서로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나, 관계성 차원에서 는 도시 주민이 농촌 주민보다 낮은 수용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경제적 여건을 통제한 상황에서 나타난 도시와 농촌 주민의 다문화 수용성 차이는 이민자로 인한 동네의 변화나 국가적 변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기술통계량을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도시 주민은 농촌 주민보다 이민 자로 인한 동네 변화나 국가적 변화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사회경제적 조건이 통제된 상황에서 개인의 다문화 수용성은 도시 여부보다는 이민자로 인한 변화 인식으로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남

#### ■ 향후 과제

- 향후 이민자에 대한 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농촌 주민보다는 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이민자 유입이 가져오는 긍정적 변화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때 효과적일 수 있음
- 특히,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지역사회 변화에 대해 주민들이 긍정적인 인식을 갖기 위해서는 이민자 거주지역의 환경 개선과 상호교류 활동이 필요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도시와 농촌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사용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이민자에 대한 인식을 세부적인 지역 차원에서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수집될 경우 개선될 여지가 있음

### 참고문헌

강대구. 2009. 도시와 농촌 지역 구분 기준 연구. 농촌지도와 개발 16권, 3호: 557-586.

다문화가족지원법[시행 2020. 5. 19.][법률 제17281호, 2020. 5. 19., 일부개정].

민무숙, 안상수, 김이선, 김금미, 조영기, 류정아. 2010. 한국형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 개발연구. 서울: 사회통합위원회. 민지선, 김두섭. 2013. 거주지역의 외국인 비중이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6권, 4호: 71-94.

법무부. 2018.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년~2022년). 과천: 법무부.

안상수, 민무숙, 김이선, 이명진, 김금미. 2012.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22.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염지혜. 2016. 농촌노인의 삶의 만족도 변화에 관한 종단연구: 도시노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농촌사회 26권, 1호: 157-200.

윤인진, 송영호. 2011.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 통일문제연구 23권, 1호: 143-192.

이한숙. 2021. [특집] 한국에 이주민 정책은 있는가? 월간참여사회 2021년 5월호.

https://www.peoplepower21.org/magazine/1789498 (2023년 12월 15일 검색).

임형백. 2009. 한국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다문화사회의 차이와 정책 차별화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1권, 1호: 51-7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시행 2023. 7. 19.][법률 제19355호, 2023. 4. 18., 일부개정].

정동재. 2023. [정책제안] 이민자/체류 외국인을 지역 주민으로 끌어안기. 월간 공공정책 통권 214권: 62-65. 서울: 한국주민자치학회.

지방자치법[시행 2023. 9. 22.][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최병두, 김영경. 2011. 외국인 이주자의 관련 정책 및 지원활동에 관한 인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7권, 4호: 357-3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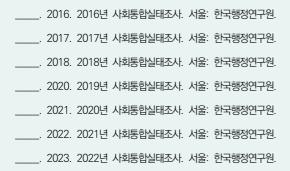
통계청. 2022.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 2020~2040년, 4월 14일. 보도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통계설명자료서비스.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https://www.narastat.kr/metasvc/index.do?orgld=154&confmNo=154019&kosisYn=Y (2023년 11월 22일 검색).

한국행정연구원 2013. 2013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_\_\_\_. 2014. 2014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_\_\_\_. 2015. 2015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황성식, 김두섭. 2020. 교육수준, 직업 및 지역에 따른 이민자 수용태도의 편차: 규범의식과 현실위협인식의 효과. 한국인구학 43권, 2호: 1-26.

Brownstein, R. 2016. The Growing Gap between Town and Country. *The Atlantic*, September 22. https://www.theatlantic.com/international/archive/2016/09/global-cities-need-immigrants/501059/(2023년 12월 3일 검색).

Luca, D., Terrero-Davila, J., Stein, J. and Lee, N. 2023. Progressive cities: Urban-rural polarisation of social values and economic development around the world. *Urban Studies* 60, no.12 2329-2350.

Maxwell, R. 2019. Cosmopolitan immigration attitudes in large European cities: Contextual or compositional effect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13, no.2: 456-474.

국토연구원 워킹페이퍼는 다양한 국토 현안에 대하여 시의성 있고 활용도 높은 대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실험정신을 가지고 작성한 짧은 연구물입니다. 투고된 원고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발간 되며, 외부 연구자의 투고도 가능합니다. 공유하고 싶은 새로운 이론이나 연구방법론, 국토 현안 이나 정책에 대한 찬반 논의, 국내외 사례 연구나 비교연구, 창의적 제안 등 국토 분야 이론과 정책 에 도움이 될 어떠한 연구도 환영합니다.

투고를 원하시는 분은 국토연구원 연구기획팀(044-960-0438, bbmoon@krihs.re.kr)으로 연락주십시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WP 23-15

### 도시는 과연 관용적인가: 이민자에 대한 도시~농촌 주민의 태도 비교

**연 구 진** 이소현

**발 행 일** 2023년 12월 30일

 발 행 인
 심교언

 발 행 처
 국토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rihs.re.kr

#### © 2023,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한국출판인협회에서 제공한 KoPub 서체와 대한인쇄문화협회가 제공한 바른바탕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